



브랜드 돈육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전주 · 완주지부



김광진 지부장

농 림부가 그동안 비육돈과
 모든, 그리고 총 평균 지
 육가격 형태로 발표를
 해오던 축산물 도매시장에
 서의 돼지 지육가격 발표
 방식을 지난 해 12월 1일
 부터 총평균은 제외하고
 비육돈과 모든 평균가격
 만 발표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도기적 형태로 (주)한냉
 을 비롯한 육가공회사와 양돈농가간의 지육가격
 지급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육인 브랜드육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남들보다 지육가격 지육률
 2~3% 우위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곳중 한
 곳이 전주 · 완주지부이다.

단기적인 시안인 지육가격 지급률은 물론 원
 시안적인 문제인 안전한 고급육 생산이라는 측면
 에서도 브랜드육 생산은 더욱 전주 · 완
 주 지역을 앞서가는 양돈지역으로 자리
 매김 시키고 있다.

성황리에 돼지고기 시식회 가져

일찍부터 전북지역에서 양돈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주 · 완주지부
 는 현재 31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김
 광진 지부장을 비롯, 부지부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다.
 주위에 각 지부들이 생겨나고, 양돈단지
 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수가 최근 들어



▲전주 · 완주지부 회원들이 돼지고기 삼겹살과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고 있다.



◀지난 연말 실시한 돼지고기 시식회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87호의 전체 양돈농가 중 전업화된 양돈농가로 이루어진 협회 회원들이 사육하는 두수는 5~6만두에 이르러 전체 사육두수 중 그 비중이 크다.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는 1,200~1,300두 정도 라 하며, 비교적 시설은 잘 돼 있는 편에 속한다. 또한, 출하의 경우 축협 김제육가공장이 근교에 있고, 중소육가공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유리하다 한다. 전주·완주지부는 전임 이영노 지부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제10대 현 김광진 지부장이 지부를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이 지부를 맡은 김광진 지부장과 새로운 김선기 총무의 마음가짐은 한층 의욕적이고 새롭다.

지부는 지난 연말 지부에서 브랜드육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렌포크' 돼지고기 시식회를 가지고 시민들의 성원속에 행사를 끝마쳤다. 통바베큐, 즉석구이, 수육 등의 돼지고기 요리를 종류별로 제공한 이 행사는 특정 상표를 홍보한다기 보다 양돈협회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시·군 양돈관계자들을 비롯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마침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4시에 걸쳐서 행해진 시식회는 수많은 인파로 순식간에 돼지 3마리가 동이 나 버렸다고 한다.

회원들의 50%가 참여하고 있는 이 브랜드 사업은 고부가가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회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를 통해 사료효율의 증대와 질병 면역성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첨가물의 가격이 비싸 돼지 생산비의 5~6%(kg당 약제값 1만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도 있다.

도협의회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실천해

지부에서는 그 외에도 97년 7월 1일부터 전국 35개소 공동방역사업단과 함께 공동방역사업단을 발족하여 전 회원들이 방역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단장과 총무를 협회 회원내에서 선출해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부는 축산기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매일 13일에 세미나를 병행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의 70~80%가 참여하는 월례회의는 정보교환의 가장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여름철에 한 번씩 갖는 여름 야유회는 회원들과 회원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여 좋은 친선도모의 계기가 되며, 4~5월에는 양돈인 단합대회를 열

어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등 협회의 구성원인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주·완주지부는 전라북도의 여러 지부들과 함께 전북 도협의회가 주관한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12월 2일 전주·완주지부 회원으로 있는 송정기 본회 전북도협의회장이 유종근 전북 도지사에게 101마리의 돼지를 전달한 이 전달식은 IMF로 힘든 이 시기에, 나도 힘들지만 더욱 힘든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우리 양돈인들의 따사로움과 정 많음을 한껏 표현해 주는 미담이 되고 있다.

중앙회의 활동 강화 강조

도청 소재지를 끼고 있어 완주군 분뇨처리의 어려움이 크다는 전주·완주지부는 회원들이 분노를 발효시켜 퇴비화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완

공일 지연되고 있는 완주군 분뇨처리장이 빨리 준공되어 양돈농가의 분뇨처리에 도움을 주길 바랐다.

한편, 김선기 총무는 “비육돈과 모돈의 가격차가 근소했던 98년 11월 이후 비육돈 기준 가격으로 전환된 것은 시기적으로 양돈농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이런 시기를 양돈농가의 이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지육율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기업인 한냉에서 64%란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공기업인 만큼 협회가 힘을 모아 빠른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육가공회사들



▲넓직한 회의실은 회원들이 항상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야 며칠 돼지를 안받아도 다른 곳에서 구하면 되지만, 조직적이지 못한 양축농가는 며칠만 돼지를 받지 않는다면 무척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협상을 계속할수록 숙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에 건의하고 전국 회원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려주는 일률적인 모습이 지금의 중앙회에서 아쉽습니다”라고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임기동안 회원들을 위한 사업 한가지 짚 이룩해 놓고 싶어

지부는 회원들이 영세해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김광진 지부장은 이야기하고, “지부의 자체예산이 적어 재정자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거나 일이 생길 경우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

습니다”라며 재정적인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지부장은 현 시점에서는 회원들이 시작하고 못하고 있지만, 자가배합으로 변환할 경우 사료비의 30%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에게 자가배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여건이 맞으면 공동구매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김광진 지부장은 임기기간 중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지부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이루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내어 보았다.<취재 : 조진현> **양돈**